

김종희 “호남정신으로 지방선거 승리”

국민의당 도당 신년하례회

김종희 위원장은 신년하례회에서 “국민의당 창당정신인 변화와 혁신의 근거는 호남정신이다. 호남정신으로 팔팔 뭉쳐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참석자 당원들에게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고 마다론 곳에 다 다리아만 변화가 탄생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진통 없는 결과는 없다”며 현재 당이 겪고 있는 내홍이 개혁과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김종희 위원장은 국민의당 창당정신은 호남정신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변화와 개혁의 정신 ▲소통과 화합의 정신 등 세 가지 호남정신을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정신의 구현을 당부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8일 오전 11시 도당 회의실에서 김종희 위원장과 김광수 의원,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당 고문단과 상설위원장 및 대표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도당 회의실에서 신년 하례회를 열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국민의당 전북도당 제공)

한편 정동영 의원, 조배숙 의원, 유성엽 의원, 김관영 의원, 이용호 의원은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린 통합과 관련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득이하게 도당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축전으로 대신했다. /김진성기자

통합반대파 “통합파 비서가 회의 몰래 참석·기록”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 통합 반대파가 8일 통합과 의원실 소속 비서가 반대파 회의에 몰래 참석해 내용을 기록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자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김종희 의원의 비서 되시는 분이 자기 신문을 숨기고 회의에 참석해 몰래 기록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반대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공개회의를 소집 30여 분간 진행된 후 비공개로 전환해 개혁신당 창당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신문을) 중간에 확인해 퇴장을 요구했는데 이걸 볼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통합과 측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뉴시스

추미에 “한국당 탄핵 사과? 반성소이자 선거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탄핵 1년이 다 돼도 사과가 없고 반성문 한장 써내지 않다가 선거용으로 이벤트를 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한국당의 탄핵 반성 소리는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진심 어린 반성은 간데없고 이벤트를 벌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반성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에 대한 진정적 태도가 없다면 쇼에 그칠 뿐”이라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흐름을 거역한다면 반성 쇼는 안 해나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용 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진심으로 과거의 국정농단을 사죄하고 적폐청산에 협조해야 한다”며 “과거 남북관계는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부서질대로 부서져 국민의 불안이 커져 왔다. 이를 회복 과정에 끊임없이 만지를 놓고 어깃장을 놓는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한국당의) 진심 어린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丁의장-갈등 회동... “UAE 의혹 언급 전혀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나가는 공감대를 나누는 대화만 나눴을 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목적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에 회의를 찾은 칼둔 청장과 3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칼둔 청장은 면담 이후 별다른 말없이 회의를 빠져 나갔다.

이번 예방은 앞서 정 의장이 지난해 4월 UAE를 방문했을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와 면담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둔 청장과 정 의장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칼둔 청장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의 UAE 방문 목적, MB 정부 때 체결한 군사 관련 양해각서(MOU)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김 의원은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방이었다”면서 “지난 20년간 양국관계가 확대 발전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UAE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오늘 (칼둔 청장) 의장의 UAE 방문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검찰, 박근혜 재산 추정보전 청구

‘국정원 특활비 36억’ 상납 혐의... 집·수표 30억원·예금 등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추정보전 명령은 물나 추진을 피하기 위한 재산 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고리3인방’ 이재만, 인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을 최순실 씨 등이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기차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의 관리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또 일부는 문고리3인방 보좌관들에게 지급했고, 자신의 전용 의상실 운영비 6억9100만원 중 일부를 충당했다.

2017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 820여만원이었다.

탄핵 후 거머쥔 삼성동 사저의 당시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이었고, 미래에셋대우 증권 2368여만원, 농협 5억3859만원, KEB·하나은행 4억6585만원 등 예금액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국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해 약 4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둔 셈이다.

검찰은 내국동 사저와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에 대해 모두 추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4월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도 추정보전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30억원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내국동 사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유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이 30억원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현금 10억원도 수령해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丁의장 “개헌·정개특위·사개특위 출범해야”

우원식 “시원한 사회변화 만들 것”

김성태 “올해 개헌 이뤄져야”

김동철 “개헌에 책임정치 포함”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새해 첫 회동을 했다.

정 의장은 “금년 한해는 우리 원내대표들이 더 열심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에게 항상 도움과 힘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가 빠른 시간 내에 출범이 돼서 지방선거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도 정비해 주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만들어져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위원이)구성되고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하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특위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회변화를 만드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양 특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개헌 시점은 여야 합의를 통해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양 특위가 잘 운영돼 올해 안에 국민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개헌은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개헌날짜를 잡아야 한다. 교섭 단계 간 합의를 통해 개헌 날짜를 잡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을 4년 중임이나 5년 단임을 하느냐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이나 제왕적 대통령제나로 개헌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정권은 정권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 책임정치를 개헌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동철 원내대표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해 “UAE 관련 사안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면서 “칼둔 청장이 떠나고 난 뒤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국정조사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인구)

후원금 사용내역	01	02	03	04
취미계통 맞춤형	51,370,679,216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해외 구호활동
		인연 지식보급	4,079,359,901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